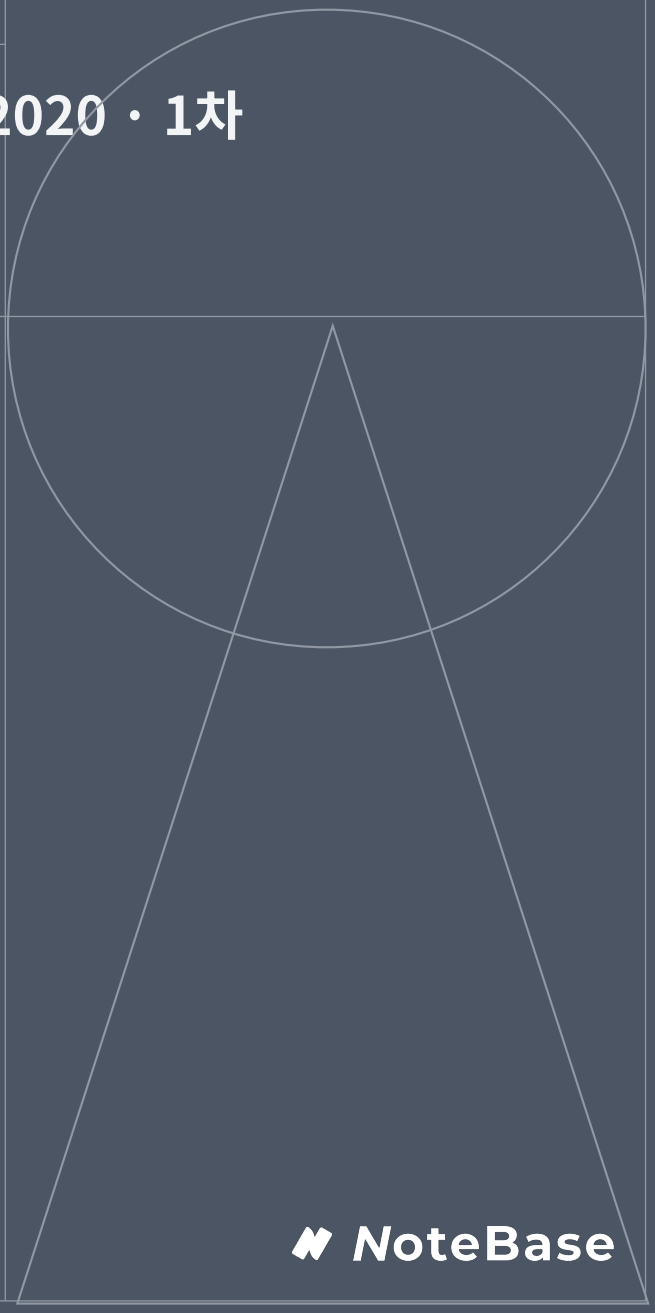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20 · 1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20 · 1차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20 · 1차

문 1.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ㄴ, ㅁ, ㅇ’은 유음이다.
㉡ ‘ㄱ, ㄲ, ㅋ’은 연구개음이다.
㉢ ‘ㄷ, ㄸ, ㅌ’은 치조음이다.
㉣ ‘ㅟ, ㅚ, ㅗ, ㅜ’는 후설모음이다.
㉤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으로, 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 등으로 분류한다. 각 문장의 분류 기준이 정확한지 판단하여 옳은 문장의 개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음은 공기가 혀의 양옆으로 흐르는 자음으로 국어에서는 ‘ㄹ’이 해당하고, ‘ㄴ, ㅁ, ㅇ’은 비음이다.
연구개음은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로 ‘ㄱ, ㄲ, ㅋ, ㅇ’이 해당한다. 치조음은 혀끝과 윗잇몸 부근에서 나는 소리로 ‘ㄷ, ㄸ, ㅌ, ㄴ, ㄹ, ㅅ, ㅆ’이 해당한다.
전설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입안 앞쪽에 놓이는 모음이고, 후설모음은 뒤쪽에 놓이는 모음이다. ‘ㅟ, ㅚ’는 전설모음이고 ‘ㅗ, ㅜ’는 후설모음이다. 마찰음은 좁은 틈으로 공기를 내보내 마찰을 일으키는 자음으로 ‘ㅅ, ㅆ, ㅎ’이 해당한다.

NoteBase

문장 판단

㉠ X — ‘ㄴ, ㅁ, ㅇ’은 유음이 아니라 비음이다. 올바르게는 ‘ㄹ은 유음이다’ 또는 ‘ㄴ, ㅁ, ㅇ은 비음이다’이다.
㉡ O — ‘ㄱ, ㄲ, ㅋ’은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에서 조음되는 연구개음이다.
㉢ O — ‘ㄷ, ㄸ, ㅌ’은 혀끝과 윗잇몸 부근에서 조음되는 치조음이다.
㉣ X — ‘ㅟ, ㅚ’까지 후설모음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ㅟ, ㅚ는 전설모음이고, ㅗ, ㅜ는 후설모음이다’이다.
㉤ O — ‘ㅅ, ㅆ, ㅎ’은 공기의 마찰을 일으켜 내는 마찰음이다.
따라서 옳은 문장은 ㉡, ㉢, ㉤의 3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1개’가 아니라 옳은 문장은 3개이다.
② X — ‘2개’가 아니라 옳은 문장은 3개이다.
③ O — 옳은 문장이 ㉡, ㉢, ㉤의 3개이므로 맞는다.
④ X — ‘4개’가 아니라 옳은 문장은 3개이다.

오답 포인트

㉠에서 유음과 비음을 혼동하거나, ㉣에서 원순모음인 ‘ㅟ, ㅚ, ㅗ, ㅜ’를 모두 후설모음으로 판단하기 쉽다.
입술을 둥글게 하는 원순성은 혀의 앞뒤 위치를 가르는 전설·후설 분류와 다른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음은 먼저 조음 위치인지 조음 방법인지 기준을 구분하고, 모음은 전설·후설과 평순·원순을 서로 섞지 않는다.
각 문장을 O/X로 확정한 뒤 O의 개수만 센다.

암기 포인트

‘ㄴ·ㅁ·ㅇ은 비음, ㄹ은 유음’, ‘ㅟ·ㅚ는 전설모음, ㅗ·ㅜ는 후설모음’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2. 다음 중 호칭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남편의 누나 → 형님

② 남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일컫는 말 → 춘부장(椿府丈), 춘장(椿丈), 춘당(椿堂)

③ 누나의 남편 → 자형

④ 자신의 살아계신 어머니를 일컫는 말 → 자당(慈堂)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가족 관계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알맞은 친족 호칭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기 부모를 남에게 말할 때와 상대방의 부모를 높여 말할 때는 호칭이 다르다. 자신의 살아계신 아버지는 가친, 어머니는 자친이라 하고, 남의 아버지는 춘부장·춘장·춘당, 남의 어머니는 자당이라 높여 일컫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남편의 누나는 아내가 '형님'이라고 부른다.
② O — 춘부장(椿府丈), 춘장(椿丈), 춘당(椿堂)은 모두 남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높여 일컫는 말이다.
③ O — 누나의 남편은 자형이라고 한다. 매형이라고도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자신의 살아계신 어머니 → 자당'이다. 자신의 살아계신 어머니를 남에게 일컬을 때는 '자친(慈親)'이라 하고, '자당(慈堂)'은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일컫는 말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자친과 자당은 모두 어머니와 관련된 한자어라 혼동하기 쉽다. 핵심은 높임의 대상이다. 자기 어머니는 자친, 상대방의 어머니는 자당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누구의 가족을 가리키는지 확인한다. 자기 부모이면 가친·자친, 상대방의 부모이면 춘부장·자당으로 구별한다. 친족 호칭은 화자와 대상의 관계까지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자기 부모는 가친·자친, 남의 부모는 춘부장·자당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사잇소리 표기 단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댓값
② 나랏님
③ 전셋집
④ 만둣국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사이시옷은 일정한 소리 변화가 나타나는 합성어에 적으며,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에는 적지 않는다는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이시옷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 등이 덧날 때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받쳐 적는다. 반면 어근에 접사가 붙은 파생어는 합성어가 아니므로 사이시옷 표기의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기댓값'은 '기대'와 고유어 '값'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값'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② X — '나랏님'의 '-님'은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이 말은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이다. 틀린 표기 '나랏님'은 '나라님'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전셋집'은 '전세'와 고유어 '집'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집'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④ O — '만둣국'은 '만두'와 고유어 '국'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국'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오답 포인트

'나라의 임자'라는 뜻을 떠올려 '나라+님'을 두 명사의 결합처럼 보기 쉽다. 그러나 여기의 '-님'은 접미사이므로 '나랏님'이 아니라 '나라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두 말이 결합한 합성어인지, 어근에 접사가 붙은 파생어인지 확인한다. 합성어라면 구성 요소의 고유어 여부와 된소리 또는 'ㄴ' 첨가 같은 소리 변화를 살피고, 파생어라면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댓값·전셋집·만둣국에는 사이시옷을 쓰고, 접미사 '-님'이 붙은 나라님에는 쓰지 않는다.

NoteBase

문 4. 다음 훈민정음 제자원리 중 가획자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 것은?

① ㅂ

② ㅊ

③ ㄹ

④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훈민정음 초성자의 제자 원리에서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와, 가획의 규칙에서 벗어난 이체자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ㄱ·ㄴ·ㅁ·ㅅ·ㅇ이다.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지는 계열을 나타낸 글자이다. 이체자는 획을 더한 모양이더라도 가획에 따른 소리의 세기 관계를 따르지 않는 글자로, ㆁ·ㄹ·ㅿ이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ㅂ은 기본자 ㅁ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이다.
② O — ㅊ은 ㅅ에서 가획된 ㅈ에 다시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이다.
③ X — ㄹ을 가획자로 보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ㄹ은 가획자가 아니라 이체자이다.
④ O — ㄷ은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이다.

오답 포인트

ㄹ도 ㄴ에 획을 더한 듯한 모양이어서 가획자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글자 모양에 획이 더 보이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자 원리상 가획자 계열인지 이체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본자 ㄱ·ㄴ·ㅁ·ㅅ·ㅇ을 확인한 뒤 각 기본자에서 이어지는 가획 계열을 찾는다. ㆁ·ㄹ·ㅿ은 별도의 이체자 묶음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본자 5개는 ㄱ·ㄴ·ㅁ·ㅅ·ㅇ, 이체자 3개는 ㆁ·ㄹ·ㅿ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중 키노드라마(kino-drama)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연극과 영화를 결합하여 하나의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 극이다.

②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독서를 위해 쓴 희곡이다.

③ 원래는 음악을 반주로 한 오락적인 서민 연극을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현재는 주로 일상사를 바탕으로 하여 오락성을 제공하는 통속적인 극을 말한다.

④ 주인공의 행복이나 성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행복한 결말을 맺는 극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키노드라마의 정의를 레제드라마, 멜로드라마, 희극의 특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키노드라마는 무대에서 진행하는 연극과 스크린에 상영하는 영화를 결합하여 하나의 줄거리를 전개하는 극이다. 레제드라마는 무대 상연보다 독서를 목적으로 쓴 희곡이고, 멜로드라마는 본래 음악 반주를 곁들인 대중적 오락극에서 출발한 통속극이며, 희극은 인물의 행복이나 성공을 다루고 대체로 행복한 결말을 맺는 극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연극과 영화를 결합하여 하나의 줄거리를 전개한다는 설명은 키노드라마의 정의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독서를 위해 쓴 희곡'이다. 이는 키노드라마가 아니라 레제드라마의 설명이며, 키노드라마는 무대극과 영화를 결합해 상연하는 극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음악을 반주로 한 오락적인 서민 연극'에서 유래하여 '일상사를 바탕으로 오락성을 제공하는 통속적인 극'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키노드라마가 아니라 멜로드라마의 설명이며, 키노드라마는 연극과 영화를 결합한 극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주인공의 행복이나 성공'과 '행복한 결말'을 핵심으로 든 것이다. 이는 희극의 일반적 특징이며, 키노드라마의 핵심은 무대 연극과 영화의 결합이다.

오답 포인트

선지들은 모두 극의 종류를 설명하지만 구별 기준이 다르다. ②는 공연 여부, ③은 음악 반주에서 비롯된 통속성, ④는 행복한 결말을 말하며, ①만 매체의 결합이라는 키노드라마의 핵심을 제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kino'가 영화와 관련된 말임을 바탕으로, 선지에서 무대 연극과 영화의 결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독서용 희곡, 통속극, 행복한 결말은 각각 다른 극의 개념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키노드라마는 무대극과 영화의 결합, 레제드라마는 독서용 희곡, 멜로드라마는 통속극, 희극은 행복한 결말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중 나이와 한자어가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화갑(華甲) - 40세

② 애년(艾年) - 50세

③ 산수(傘壽) - 70세

④ 망백(望百) - 99세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어와 해당 연령의 정확한 연결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갑(華甲)은 61세, 애년(艾年)은 50세, 산수(傘壽)는 80세, 망백(望百)은 91세를 뜻한다. 백수(白壽)는 99세를 뜻하므로 망백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화갑(華甲) - 40세'가 틀렸다. 화갑은 61세를 뜻하며, 40세는 불혹(不惑)이다.
② O — 애년(艾年)은 50세를 뜻하므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③ X — '산수(傘壽) - 70세'가 틀렸다. 산수는 '傘'의 약자가 八十처럼 보이는 데서 유래한 80세의 명칭이며, 70세는 고희(古稀)이다.
④ X — '망백(望百) - 99세'가 틀렸다. 망백은 백 살을 바라본다는 뜻의 91세이며, 99세는 백수(白壽)이다.

오답 포인트

④에서 '백 살을 바라본다'는 망백을 백 살에 매우 가까운 99세로 오해하기 쉽다. 망백은 91세이고, 99세는 百에서 一을 빼면 白이 된다는 뜻의 백수(白壽)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나이 명칭을 대표 연령과 짝지어 판단한다. 불혹 40세, 애년·지천명 50세, 화갑 61세, 고희 70세, 산수 80세, 망백 91세, 백수 99세의 연결을 기준으로 선지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애년 50, 화갑 61, 산수 80, 망백 91, 백수 99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7. 다음 <보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감독관: 원고! 원고!
교수: (일어나며)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감독관: (책상 쪽을 가리키며) 원고! 원고!
교수, 소파 한구석에 있던 가방을 집어 갖고서 황급히 책상에 가 앉는다.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 내고 책을 펼친다.
감독관: 원고! 원고!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
처: 어머나!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대기에 감긴 철쇄를 줄줄 끌어다 교수의 허리에 감아 준다.

① 사회 현실을 풍자한 부조리극이다.
② 근대극이 뿌리를 내린 시기에 창작되었다.
③ 전통적인 사실주의 극문학이다.
④ 반공주의적인 목적극의 대본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근삼의 희곡 「원고지」에 나타난 부조리극의 특징과 풍자 대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고지」는 교수가 원고와 번역에 쫓기며 가족과 사회에 억압되는 모습을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무대 장치로 드러낸 현대 희곡이다. 감독관의 반복적인 독촉과 교수의 허리에 감기는 쇠사슬은 현대인의 기계적이고 구속된 삶을 희화화하며 사회 현실을 풍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감독관이 '원고'를 되풀이해 외치고 쇠사슬이 교수의 몸을 구속하는 비현실적 상황을 통해, 일과 가족에 억눌린 현대인의 삶을 풍자한 부조리극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근대극이 뿌리를 내린 시기'이다. 「원고지」는 근대극의 정착기에 창작된 작품이 아니라 전후 사회의 현대인을 다룬 현대 희곡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전통적인 사실주의'이다. 실제로는 반복되는 대사, 과장된 행동, 쇠사슬이라는 상징적 소품 등 비사실적·부조리극적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반공주의적인 목적극'이다. 실제로는 이념 선전을 목적으로 한 작품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족에게 구속되어 인간성을 잃어 가는 삶을 풍자한 작품이다.

오답 포인트

쇠사슬과 감독관을 현실의 사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주의극이나 목적극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장치들은 특정 이념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억압과 소외를 과장하여 보여 주는 상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행동, 반복되는 대사, 상징적 소품이 인물의 억압과 소외를 드러내면 사실주의적 재현보다 부조리극적 풍자에 초점을 맞춘다.

암기 포인트

「원고지」는 원고 독촉과 쇠사슬로 현대인의 기계적 삶과 구속을 풍자한 부조리극이다.

NoteBase

문 8.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자음 축약’, ‘자음군 단순화’ 등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음운의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교체’는 전자에 해당하지만, ‘첨가’, ‘탈락’, ‘축약’은 후자에 해당한다.

① 담요
② 밖
③ 맨입
④ 넋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음운 변동 뒤 음운의 수가 그대로인 교체와, 음운의 수가 달라지는 첨가·탈락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음운의 수가 변하지 않는 현상이다.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생겨 음운의 수가 늘어나고, 탈락은 있던 음운이 없어져 음운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자음 축약은 두 자음이 하나의 자음으로 합쳐져 음운의 수가 줄어든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담요’는 [담뇨]로 발음되어 없던 ‘ㄴ’이 첨가된다. 음운의 수가 하나 늘어나므로 밑줄 친 경우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ㄴ 첨가로 음운의 수가 늘어나는 예’이다.
② O — ‘밖’은 [박]으로 발음된다. 받침 ‘ㄲ’이 음절 끝에서 ‘ㄱ’으로 교체될 뿐 음운 하나가 음운 하나로 바뀌므로 음운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③ X —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되어 ‘ㄴ’이 첨가된다. 음운의 수가 하나 늘어나므로 밑줄 친 경우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ㄴ 첨가로 음운의 수가 늘어나는 예’이다.
④ X — ‘넋’은 [넉]으로 발음되어 겹받침 ‘ㄳ’ 가운데 ‘ㅅ’이 탈락한다. 음운의 수가 하나 줄어드므로 밑줄 친 경우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자음군 단순화로 음운의 수가 줄어드는 예’이다.

오답 포인트

‘밖’의 표기와 발음이 달라진다는 사실만 보고 음운의 수까지 줄었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ㄲ’과 ‘ㄱ’은 각각 하나의 음운이므로 [밖→박]은 탈락이 아니라 교체이다. 반면 ‘넋’은 겹받침의 두 자음 중 하나가 실제로 없어지는 자음군 단순화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기와 발음을 각각 음운 단위로 나누어 그 수를 비교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로 바뀌면 교체, 없던 음운이 생기면 첨가, 있던 음운이 없어지면 탈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교체는 수 그대로, 첨가는 하나 늘고, 탈락·축약은 줄어든다.

NoteBase

문 9.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궁도련님: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 세상의 어려운 일을 잘 모르는 사람

② 책상물림: 책상 앞에 앉아 글공부만 하여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

③ 윤똑똑이: 사리에 어둡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

④ 대갈마치: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람의 성격이나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고유어의 정확한 뜻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궁도련님은 부유한 집에서 자라 세상의 어려움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책상물림은 글공부만 하여 세상일에 어두운 사람이다. 윤똑똑이는 자기만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며, 대갈마치는 온갖 어려움을 겪어 아주 야무진 사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궁도련님'은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라 세상의 어려운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뜻풀이가 옳다.
② O. '책상물림'은 책상 앞에서 글공부만 하여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뜻풀이가 옳다.
③ X. 틀린 표현은 '사리에 어둡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윤똑똑이'는 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④ O. '대갈마치'는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뜻풀이가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의 '윤똑똑이'를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말의 핵심은 무지가 아니라 자기만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태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어의 중심 단서를 연결한다. 궁도련님은 부유한 성장 환경, 책상물림은 글공부와 세상일에 대한 무지, 윤똑똑이는 잘난 체, 대갈마치는 세파를 겪어 생긴 야무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윤똑똑이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잘난 체하는 사람'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보기>를 참고할 때, 단어의 형성 방식이 나머지와 가장 다른 것은?

<보기>
'-롭다'는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일반적으로 '-롭다'의 경우 한자어 뒤에 결합하여 단어를 파생하지만, 고유어 뒤에 결합하여 단어를 파생하기도 한다.

① 흥미롭다
② 애처롭다
③ 경이롭다
④ 가소롭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접미사 '-롭다'가 결합한 어근이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롭다'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흥미롭다·경이롭다·가소롭다'는 한자어 어근에 '-롭다'가 결합한 말이고, '애처롭다'는 고유어 어근에 '-롭다'가 결합한 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흥미롭다'는 한자어 어근 '흥미(興味)'에 접미사 '-롭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고유어 어근에 '-롭다'가 결합한 말이 아니며, 올바른 형성은 '흥미(한자어 어근)+-롭다'이다.
② O — '애처롭다'는 고유어 어근 '애처'에 접미사 '-롭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한자어 어근에 결합한 나머지 세 단어와 형성 방식이 다르다.
③ X — '경이롭다'는 한자어 어근 '경이(驚異)'에 접미사 '-롭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고유어 어근에 '-롭다'가 결합한 말이 아니며, 올바른 형성은 '경이(한자어 어근)+-롭다'이다.
④ X — '가소롭다'는 한자어 어근 '가소(可笑)'에 접미사 '-롭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고유어 어근에 '-롭다'가 결합한 말이 아니며, 올바른 형성은 '가소(한자어 어근)+-롭다'이다.

오답 포인트

평소 익숙하게 쓰는 말인지가 아니라 '-롭다' 앞 어근의 어종을 판단해야 한다. 특히 '가소롭다'를 겉모양만 보고 고유어 결합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가소(可笑)'는 한자어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모든 단어에서 접미사 '-롭다'를 분리한 뒤, 남은 어근이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비교한다. 세 어근은 한자어이고 하나만 고유어이면 그 하나가 형성 방식이 다른 단어이다.

암기 포인트

흥미(興味)·경이(驚異)·가소(可笑)는 한자어, 애처는 고유어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중 '효녀 지은'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가장 옳은 것은?

효녀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아침과 저녁으로 문안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① 磨斧爲針
② 厚顔無恥
③ 浩然之氣
④ 昏定晨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지문에 나타난 인물의 행위와 사자성어의 뜻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단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문안드리며 어머니를 봉양하였다'는 부분이다.

핵심 개념

昏定晨省(혼정신성)은 저녁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살피고 아침에는 부모의 안부를 살핀다는 뜻으로, 아침저녁으로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는 효행을 이른다.

선지별 해설

① X — 磨斧爲針(마부위침)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아침저녁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틀렸으며, 올바른 표현은 昏定晨省이다.
② X — 厚顔無恥(후안무치)는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틀렸으며, 올바른 표현은 昏定晨省이다.
③ X — 浩然之氣(호연지기)는 도덕적 수양을 통해 길러지는 크고 굳센 기운을 뜻한다.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살피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틀렸으며, 올바른 표현은 昏定晨省이다.
④ O — 昏定晨省(혼정신성)은 저녁과 아침에 부모를 보살피고 문안드리는 효행을 뜻한다. 지은이 아침과 저녁으로 어머니께 문안드리며 봉양한 행위와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선지들이 모두 익숙한 사자성어이므로 한자의 분위기만으로 고르면 혼동하기 쉽다. 지문의 '아침과 저녁'은 昏(저녁)과 晨(새벽·아침)에, '문안드리며 봉양하였다'는 定(편안히 모심)과 省(살핌)에 대응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위를 나타내는 핵심 단서를 먼저 찾고 사자성어의 중심 뜻과 대응시킨다. 부모를 아침저녁으로 문안하고 보살피는 내용이면 昏定晨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昏定晨省은 '저녁 혼, 아침 신'으로 기억하며, 아침저녁으로 부모를 살피는 효행을 뜻한다.

NoteBase

문 12. 다음 대화에서 김 경장이 범한 어법 사용의 오류와 가장 유사한 것은?

김 경장: 여보세요.
이 경장: 여보세요. 최 경위님 계신가요?
김 경장: 지금 안 계시는데요.
이 경장: 어디 멀리 가셨나요?
김 경장: 네, 지금 순찰 중이십니다.
이 경장: 순찰은 언제 끝나나요?
김 경장: 글쎄요, 순찰 끝나고 팀원들과 면담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이 경장: 네, 그럼 통화가 어렵겠군요.

① 소장님은 본청에 볼일이 있으셔서 일찍 본청에 가셨습니다.
② 내일 목포역전 앞에서 만나자.
③ 선장님, 요청하신 서류 나오셨습니다.
④ 국장님, 과장님이 외부에 나갔습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높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말에 높임 표현을 잘못 붙인 경우를 찾는 문제이다. 대화의 '면담이 계시다'는 높여야 할 인물이 아니라 '면담'을 '계시다'의 주체로 삼은 표현이어서 부적절하다.

핵심 개념

'계시다'는 높여야 할 사람이 주어일 때 쓰는 '있다'의 특수 높임말이다. 반면 높여야 할 사람과 관련된 소유물·일·상태 등을 간접적으로 높일 때에는 일반 용언에 '-시-'를 넣은 '있으시다'를 쓸 수 있다. 따라서 '최 경위님이 계시다'는 가능하지만, '최 경위님은 면담이 있으시다'라고 해야 하며 '면담이 계시다'라고 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소장님은 볼일이 있으셔서'는 소장님과 관련된 일을 '-시-'로 간접 높인 표현이므로 대화의 오류와 다르다. 문장 자체는 '소장님은 본청에 볼일이 있으셔서 일찍 본청에 가셨습니다.'로 적절하다.
② X — '역전'이 이미 '역의 앞쪽'을 뜻하므로 '역전 앞'은 의미가 겹친다. 대화와 같은 높임 표현의 오류가 아니라 중복 표현의 오류이며, '내일 목포역 앞에서 만나자.'로 고친다.
③ O — 사람이 아닌 '서류'에 '-시-'를 붙인 '나오셨습니다'는 사물을 부당하게 높인 표현이다. '면담'에 사람을 높이는 '계시다'를 쓴 대화의 오류와 가장 유사하며, '선장님, 요청하신 서류 나왔습니다.'로 고친다.
④ X — 국장에게 그보다 아래 직급인 과장을 말하면서 '과장님'이라고 높인 압존법 관련 오류이다. 사람이 아닌 '면담'을 높인 대화의 오류와는 유형이 다르며, 전통적인 압존법에 따르면 '국장님, 과장이 외부에 나갔습니다.'로 고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있으셔서'와 대화의 '계시다'를 모두 높임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오류로 보기 쉽다. 그러나 '있으시다'는 간접 높임에 쓸 수 있고, '계시다'는 높임을 받는 사람 자체가 주어일 때 써야 한다. ③은 서류라는 사물에 '-시-'를 붙였다는 점에서 대화의 사물 높임 오류와 같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높임 표현이 보이면 먼저 서술어의 문법적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확인한다. 높여야 할 사람 자체가 주어이면 '계시다'를 쓸 수 있고,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이나 상태를 간접 높이면 '있으시다'를 쓸 수 있지만, 사물 자체에 '-시-'를 붙이는 표현은 피한다.

암기 포인트

사람이 계시다, 높일 사람에게 일이 있으시다, 사물은 나왔다.

NoteBase

문 13. 다음 제시된 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강산 풍월(江山風月) 거놀리고 내 백 년(百年)을 다 누리면
>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이 사라 오다,
>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할소냐.
> 이 몸이 이렁 굼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① 4음보 율격을 지닌 가사이다.

② 유교 사상인 충 사상이 드러나 있다.

③ 조선 전기의 강호가도(江湖歌道)가 잘 나타나 있다.

④ 여정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잘 드러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된 가사의 율격, 사상, 자연관과 내용 전개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사는 산문처럼 길게 이어지는 4음보 중심의 운문 갈래이다. 강호가도는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기는 삶을 노래하는 문학적 경향이며, 연군지정은 임금을 그리워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제시된 부분은 강산의 풍월을 즐기는 호탕한 정회와 '역군은이샷다'에 나타난 연군의 정을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이 작품은 긴 시구가 4음보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사이다.
② O — '이 몸이 이렇 굼도 역군은이샷다'는 자신의 호탕한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는 뜻이므로 유교적 충 사상이 드러난다.
③ O — '강산 풍월'을 거느리고 자연 속에서 풍류와 호탕한 정회를 누리는 모습에서 조선 전기의 강호가도가 나타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여정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잘 드러나 있다'이다. 제시된 부분은 여러 장소를 차례로 이동하는 여정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호탕한 정회와 임금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둔다.
올바르게는 '자연을 즐기는 호탕한 정회와 연군의 정이 드러나 있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작품 전체에 관동 지역을 유람하는 이동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된 부분의 직접적인 특징과 혼동하기 쉽다.
④는 작품 전체에서 떠올릴 수 있는 특징을 제시 부분에 그대로 적용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된 부분'의 설명을 묻는 문항에서는 작품 전체의 줄거리보다 인용된 시구 안에 실제로 나타난 표지를 확인한다. 장소의 연속적 변화나 시간 순서가 없고 풍월·정회·임금의 은혜만 제시되면 여정 중심의 전개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강산 풍월은 강호가도, '역군은'은 연군지정, 장소의 연속적 이동이 없으면 여정 전개가 아니다.

NoteBase

문 14. 다음 작품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 <구지가(龜旨歌)>

① 조건－요구－위협－환기
② 환기－조건－요구－위협
③ 환기－요구－조건－위협
④ 요구－위협－환기－조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구지가」의 각 행이 청자를 부르고, 행동을 요구하고, 불응의 조건을 제시한 뒤, 위협하는 흐름으로 전개됨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환기 — '龜何龜何'에서 거북을 거듭 불러 주의를 환기한다.
2. 요구 — '首其現也'에서 머리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3. 조건 — '若不現也'에서 머리를 내놓지 않는 경우를 조건으로 제시한다.
4. 위협 — '燔灼而喫也'에서 구워 먹겠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위협한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조건으로 삼아 위협하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요구가 조건보다 앞서고, 위협이 마지막에 놓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첫 행은 조건이 아니라 거북을 부르는 환기이다. 또한 요구에 불응하는 조건 뒤에 위협이 이어진다. 틀린 순서 '조건－요구－위협－환기'는 '환기－요구－조건－위협'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환기 다음에는 조건이 아니라 머리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나온다. 틀린 순서 '환기－조건－요구－위협'은 '환기－요구－조건－위협'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거북을 부르는 환기, 머리를 내놓으라는 요구, 내놓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 구워 먹겠다는 위협의 순서와 일치한다.
④ X — 작품은 요구로 시작하지 않으며 조건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틀린 순서 '요구－위협－환기－조건'은 '환기－요구－조건－위협'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若'가 이끄는 셋째 행은 조건이고, 그 조건의 결과인 위협은 넷째 행이다. 따라서 조건과 위협의 선후를 바꾸거나, 조건을 요구보다 앞에 두는 선지는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시가의 전개 방식은 각 행의 기능을 차례로 붙여 판단한다. 대상을 부르는 표현은 환기, 바라는 행동의 제시는 요구, '만약 ~하지 않으면'의 구조는 조건, 불이익의 제시는 위협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구지가」의 전개는 '부름－요구－불응 조건－위협', 곧 '환기－요구－조건－위협'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옳게 표기된 낱말들은 모두 몇 개인가?

코즈모폴리턴(cosmopolitan)
킬로칼로리(kilocalorie)
오셀로(Othello)
젤리(jelly)
카세트(cassette)
팡파르(fanfare)
아이섀도(eye shadow)
액세서리(accessory)

① 3개
② 5개
③ 7개
④ 모두 맞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외국어의 소리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은 형태가 맞는지 판별하고, 옳은 표기의 개수를 세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 표기는 원어의 철자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의 표준적인 형태로 적는다. 제시된 코즈모폴리턴(cosmopolitan), 킬로칼로리(kilocalorie), 오셀로(Othello), 젤리(jelly), 카세트(cassette), 팡파르(fanfare), 아이섀도(eye shadow), 액세서리(accessory)는 모두 옳은 표기이므로 옳게 표기된 것은 8개이다. 특히 '아이섀도우'가 아니라 '아이섀도', '악세사리'가 아니라 '액세서리'로 적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3개'가 틀렸다. 여덟 낱말이 모두 옳게 표기되었으므로 올바르게는 '8개'이다.
② X — '5개'가 틀렸다. 틀린 표기는 없으므로 올바르게는 '8개'이다.
③ X — '7개'가 틀렸다. 아이섀도와 액세서리를 포함한 여덟 표기가 모두 옳으므로 올바르게는 '8개'이다.
④ O — 제시된 여덟 낱말이 모두 외래어 표기법에 맞으므로 '모두 맞음'이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아이샤도’를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아이샤도우’로, ‘액세서리’를 ‘악세사리’로 잘못 알고 하나를 제외하면 7개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에 제시된 두 형태가 모두 표준 표기이므로 제외할 낱말이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낱말을 하나씩 표준 표기와 대조한 뒤 맞는 개수를 센다. 특히 원어 철자나 일상 발음에 끌리지 않고 ‘아이샤도·액세서리’처럼 자주 틀리는 표준형을 먼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아이샤도, 액세서리, 카세트, 팡파르가 표준 표기이다. 이 문항의 여덟 낱말은 모두 맞다.

NoteBase

문 16. 다음 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진행자: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책인 《우리나라 배》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 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교수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네, 그건 밑부분을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판옥선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가능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교수: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①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②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③ 진행자는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④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대담 참여자의 실제 발화에서 설명 요청, 이해 확인, 내용 선정·제시가 드러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담 방식은 발화의 문장 형식뿐 아니라 앞뒤 맥락과 그 발화가 수행하는 기능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추가 설명 요청은 상대에게 내용을 더 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해 확인은 상대의 설명을 자신의 말로 정리한 뒤 맞는지 묻는 것이다. 동조하며 견해를 수정하는 것은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이 앞서 밝힌 생각을 바꾸는 경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김 교수의 '네, 그렇습니다.'는 진행자가 판옥선의 평저 구조를 우리나라 바다 환경과 연결해 정리한 내용이 맞다고 확인한 말이다. 김 교수가 앞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뒤 이를 수정한 장면은 없다. 틀린 표현은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진행자가 정리한 이해가 맞다고 확인하고 있다'이다.
② O — 진행자는 마지막에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여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③ O — 진행자는 평저 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결국 …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라고 내용을 재진술하여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④ O — 진행자가 전통 선박에 담긴 지혜의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부탁하자, 김 교수는 판옥선을 소개 대상으로 선정하고 평저 구조와 그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의 '네, 그렇습니다.'를 곧바로 동조나 견해 수정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이 말은 진행자의 요약이 맞다는 확인일 뿐이며, 김 교수의 기존 견해가 바뀌었다는 근거가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행동이 실제 발화에 나타나는지 앞뒤 대화에서 근거를 찾는다. 특히 '견해 수정'은 화자가 이전에 밝힌 견해와 나중 견해가 달라졌는지를 비교하고, '이해 확인'은 상대의 설명을 바꾸어 말한 뒤 확인하는 질문인지 살핀다.

암기 포인트

재진술 뒤 확인 질문은 이해 확인이고, 견해 수정에는 이전 견해와 달라진 견해가 모두 제시되어야 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과 화자의 시점이 가장 유사한 것은?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 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 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새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 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 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의사. 왕 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십 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의의 손에도 십 원짜리 두 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의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가져갔다.
— 김동인, <감자>

①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 황순원, <소나기>

②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 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③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가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 김유정, <동백꽃>

④ 그날 밤에도 몹시 추웠다. 우리는 문을 꼭꼭 닫고 문틈을 헝겊으로 막고 이불을 둘씩 덮고 꼭꼭 붙어서 일찍 잤다.
— 전영택, <화수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서술자가 사건 밖에서 인물을 3인칭으로 서술하는지, 작품 속 인물인 '나'가 1인칭으로 서술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3인칭으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사건의 중심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 '나'가 다른 중심인물의 일을 관찰하여 전한다. 제시문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복녀·왕 서방·복녀의 남편을 3인칭으로 서술하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작품 밖의 서술자가 '소녀'를 3인칭으로 서술한다. 제시문과 마찬가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가장 유사하다.
② X — '나는 생각했습니다'에서 작품 속 인물인 옥희가 다른 인물인 어머니의 일을 전하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제시문과 같은 시점으로 고치면 '옥희는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생각했다'처럼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을 3인칭으로 서술해야 한다.
③ X —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가'에서 사건의 중심인 '나'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전하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제시문과 같은 시점으로 고치면 '그는 다시 닭을 잡아다가 가두었다'처럼 주인공을 3인칭으로 서술해야 한다.
④ X — '우리는 문을 꼭꼭 닫고'에서 작품 속 '나'가 포함된 '우리'가 화수분 가족의 일을 관찰하여 전하므로 이 대목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제시문과 같은 시점으로 고치면 '그들은 문을 꼭꼭 닫았다'처럼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을 3인칭으로 서술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가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어 내용만 보면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②의 '나는', ③의 '나는', ④의 '우리는'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반면 ①은 제시문처럼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을 3인칭으로 부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술자를 가리키는 말이 '나·우리'인지, 인물의 이름이나 '그·그녀'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나'가 사건의 중심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다른 중심인물을 관찰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3인칭으로 전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건 밖 3인칭은 전지적 작가 시점, 중심인물인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관찰자인 '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맘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대개 그렇습디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쳐 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지?”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 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오.”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 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①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이 어두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② 1인칭 서술자가 관찰 대상이 되는 인물을 서술하고 있다.

③ ‘나’는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회유하고 있다.

④ ‘그’는 자존심이 무척 강한 인물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서술 시점, 배경의 상징적 기능, 인물의 말과 행동에 드러난 심리 및 성격을 작품의 구체적 표현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 인물인 '나'가 다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방식이다. 배경 묘사는 인물의 처지나 앞으로의 운명을 암시할 수 있으며, 인물의 성격은 대사와 행동을 근거로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그'가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삼켜져 버렸다'는 표현은 그의 암담한 처지와 앞으로 펼쳐질 어두운 삶을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② O. 작품 속 '나'가 강도인 '그'의 표정, 행동, 말 등을 관찰하여 전달하므로 1인칭 서술자가 관찰 대상 인물을 서술하고 있다.

③ X. 틀린 부분은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회유하고 있다'이다.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의도로 그의 피치 못할 사정을 추측하고 이웃의 도움을 언급한다. 오히려 정체를 확인할 단서인 구두를 보려고 전등을 켜려다가 그 충동을 참는다. 올바르게는 '나'는 '그'를 안심시키고 위로하여 돌려보내려 한다고 해야 한다.

④ O. 자신의 사정을 짐작하는 말에 분개하고, 떠나면서도 '이래 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오'라고 학력을 내세우는 모습에서 상처 입은 자존심과 강한 자존심이 드러난다.

오답 포인트

'나'가 강도에게 말을 건네는 행동만 보고 이를 정체를 캐기 위한 회유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서술자가 직접 밝힌 의도는 강도를 안심시키는 것이며, 구두를 확인하려는 충동마저 억누른다는 점이 ③의 목적과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의도는 추측하지 않고 서술자가 직접 밝힌 목적과 뒤이어 나타난 행동을 함께 대조한다. 배경의 암시는 분위기와 인물의 처지를 연결하고, 성격은 반복되거나 두드러진 말과 행동을 근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나'의 의도는 정체 확인이 아니라 안심과 위로이며, '그'의 어둠과 학력 발언은 암담한 삶과 상처 입은 자존심을 드러낸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많이 소원해졌다. 맹수의 위협을 받는 일도 없어졌거니와 아름다운 새소리를 접하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면 저개발 국가의 경우는 어떨까? 아프리카의 비극적인 상황을 증언하는 책 속에 유명한 일화가 실려 있다. 탄자니아의 한 초등학교에 갔을 때 함께 간 TV 방송국 사람이 도화지와 크레용을 아이들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부탁했다. "얘들아, 아무거나 좋으니까 동물 그림을 그려 보렴." 아이들은 처음으로 만져보는 흰 도화지가 신기한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 시간쯤 후에 선생님께서 "다 그린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며 아이들을 자상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저마다 손에 도화지를 높이 들고 자기들이 그린 그림을 앞다퉈 보여 주었다. 하지만 저자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동물을 그린 아이는 단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 남자애는 도화지 한쪽 끝에 파리를 그렸다. 또 한 남자애는 아주 가느다란 두 다리를 지닌 새를 그렸다. 동물 그림이라고는 그것뿐이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물동이나 밥그릇을 그렸다.
저자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라면 멋진 코끼리나 기린이나 얼룩말을 그릴 거야."
그러나 아프리카에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몇몇 보호 구역에서만 동물을 볼 수 있다. 그런 곳 주위에서 살고 있는 아이라면 동물을 보거나 동물에 대해 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도 아프리카 동물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동물원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그림책도 없기 때문이다.

① 두 명의 아이만 동물을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엉뚱한 것을 그렸다.

② 저자는 직접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동물 그림을 그려 보게 했다.

③ 아프리카 아이들이라도 야생 동물을 직접 보기는 어렵다.

④ 산업화 사회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많이 멀어졌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글에 제시된 행위의 주체와 핵심 사실을 선지의 표현과 정확히 대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용 일치 문제는 선지의 주어, 수량, 행위, 원인 등이 본문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특히 비슷한 인물이 여럿 등장하면 누가 행동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본문에서 동물을 그린 아이는 두 명뿐이었고, 다른 아이들은 물동이나 밥그릇을 그렸다고 하였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저자는 직접'이다. 아이들에게 도화지와 크레용을 건네며 동물 그림을 부탁한 사람은 저자가 아니라 함께 간 TV 방송국 사람이다. 올바르게는 '저자와 함께 간 TV 방송국 사람이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동물 그림을 그려 보게 했다'이다.
③ O — 본문은 아프리카에서도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이 몇몇 보호 구역에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야생 동물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므로 일치한다.
④ O — 글의 첫 문장에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다고 명시하므로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저자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용해 행동의 주체를 바꾼 선지이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과 직접 부탁했다는 것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선지는 주어와 서술어를 먼저 묶어 본문과 대조한다. 인물이 여러 명이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를 확인하면 주체를 바꾼 오답을 가려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내용 일치 판단의 핵심은 주체·수량·행위·원인의 정확한 대응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신표현주의 건축은 표현주의의 두 가지 강령 가운데 자연 유기성을 차용하여 그 의미를 현대 문명에 맞게 부활시킨 건축 운동이었다. 큰 방향은 현대 산업 사회의 기계 문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총괄하는 반문명 운동의 성격을 지녔으며 표현주의의 자연 유기성에서 이상적 모델을 찾았다. 그러나 세부 경향에서는 기술 발전의 힘을 빌리고 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의 차이도 보였다. 범위가 비교적 넓은 신표현주의 건축의 경향은 크게 세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현주의가 연속되는 경향이었다. 표현주의 건축은 전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르 코르뷔지에는 말년에 콘크리트의 거친 표면 질감과 가소성을 이용하여 형태 변화가 심하고 강한 인상의 작품들을 남겼다. 이런 경향은 뉴 브루털리즘이나 표현주의로 분류된다. 표현주의 건축가 샤룬은 1963년에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을 남기는 등 전후에 왕성하게 활동하며 뒤늦게 표현주의의 완성을 이루었다.

둘째, 반문명 운동으로서 생태 건축과 일정한 연관성을 갖는 경향이다. 표현주의 건축의 자연 유기성 개념을 차용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이 경향은 좁은 의미에서 신표현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 유기성의 차용이 자연 찬양, 자연 회귀, 자연과의 조화 등 신비주의적 자연관을 배경으로 갖는 점에서 생태 건축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연관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열 환경과 관련하여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정도와 자연과의 일체감의 정도 등이 약한 점에서 생태 건축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셋째, 자연 유기성에서 진보하여 자연 유기 형태를 건물 모습에 직접 차용하는 경향이다. 표현주의 건축에서 동일한 경향을 추구했던 핀스터린, 슈타이너, 멘델존 등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향이 열 환경과 연계된 유기성에 치중하면 생태 건축의 한 분파인 유기 건축이 되는 반면 형태에 치중하면 신표현주의에 머물게 된다. 신표현주의에서는 자연 유기 형태를 실제 건물로 구현하기 위해 세부적 기법을 정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형태주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 실제로 자연 유기 형태를 빚어내는 구체적 기법에서 사선, 예각, 기하 충돌, 수정체, 동굴, 폭파 형태 등 다양한 형식주의 또는 형태주의 기법들이 동원된다.

자연 유기 형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형식주의의 한 종류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 경향은 앞의 두 번째 경향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으나, 자연 재료보다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 임재석,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1945~2000》

① 신표현주의 건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경향을 보이며, 넓은 범위에 걸쳐있다.

② 자연 유기 형태를 건물 모습에 반영하는 경향의 차이에 따라 다른 분파에 속하게 된다.

③ 신표현주의 건축은 기계 문명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기계 문명을 활용했다는 한계도 있다.

④ 신표현주의의 세 가지 경향은 모두 가소성이 있는 콘크리트 등을 주재료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신표현주의 건축의 세 가지 경향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글의 진술과 정확히 대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표현주의 건축은 표현주의의 자연 유기성을 현대적으로 되살리고 기계 문명에 반대하는 성격을 띤 건축 운동이다. 글은 그 경향을 표현주의의 연속, 생태 건축과 연관된 반문명적 경향, 자연 유기 형태를 건물에 직접 차용하는 경향의 세 방향으로 나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신표현주의 건축의 범위가 비교적 넓고 그 경향을 크게 세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② O — 자연 유기 형태를 차용하는 경향은 열 환경과 연계된 유기성에 치중하면 유기 건축이 되고, 형태에 치중하면 신표현주의에 머문다. 따라서 치중하는 방향에 따라 분파가 달라진다는 설명은 글과 일치한다.
③ O — 신표현주의의 큰 방향은 기계 문명에 반대하는 반문명 운동이지만, 세부 경향에서는 기술 발전의 힘을 빌렸다는 한계가 있다고 제시되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세 가지 경향은 모두 가소성이 있는 콘크리트 등을 주재료로 사용했다'이다. 첫째 경향의 르 코르뷔지에는 콘크리트의 가소성을 이용했고 셋째 경향도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둘째 경향은 자연 재료를 사용할수록 생태 건축과의 연관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콘크리트 사용은 세 경향 모두의 공통점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첫째 경향과 셋째 경향에 나온 콘크리트 관련 진술을 세 경향 전체의 공통점으로 확대하면 ④를 맞는 내용으로 오인하기 쉽다. 글의 '모두'와 '주재료'라는 강한 표현을 각 경향의 설명에 하나씩 대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모두', '항상', '공통점'처럼 범위를 넓히는 표현을 먼저 확인하고, 글이 나눈 각 항목에 그 속성이 빠짐없이 적용되는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신표현주의의 세 방향은 '표현주의의 연속·생태 건축과의 연관·자연 유기 형태의 직접 차용'이며, 콘크리트는 세 방향 모두의 공통 재료가 아니다.

NoteBase